



영암 서킷에서는 F1 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와 이색 체험행사가 연중 계속된다. 사진은 국내 최대 포로 레이스 대회인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오토바이의 박진감 넘치는 질주도 계속된다. 사진은 코리아로드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젤하게 중심을 잡으며 경주장을 돌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F1 비시즌에도 모터스포츠·체험 행사 풍성

슈퍼레이스 류시원 등 연예인 레이스 총출동

‘질주 본능’은 계속된다. F1은 ‘코리아그 랑프르(10월 12일~14일)’ 대회기간 뿐 아니라 1년 12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 다. 정식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에도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주 등 다양한 국내 모터스포츠와 이색 체험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15월 마을 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국내 최대 포로 레이스 대회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포로대회로 제네시스루페 19대, 포르테루페 17대, 아반떼 22대 등 총 65대의 차량이 출전하여 시리즈 챔피언을 다툰다.

하반기에는 F1 국제대회가 끝나는 오는 9월 23일(4라운드), 10월 27일(5라운드)~28일(6라운드) KSF 대회가 영암 서킷에서 펼쳐진다. 제네시스루페 챔피언십에서는 폴 아이트 인디코프의 오일기, 인제오모아리의 아오기, 아틀라스 BX의 조양욱가 최명길(솔라이트인디고) 등 인기 드라이버들이 출동한다.

또 일반인이 직선도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모터스포츠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나도 레이서다’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KSF와 더불어 국내 2대 포로 레이스 대회

인 슈퍼레이스도 영암 서킷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다. 매 대회마다 경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많고 안재모, 류시원, 김진표, 이화선 등 유명 연예인 레이서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더해준다. 각 팀이 부스를 공개하고, 진 클래스의 경주차, 드라이버, 레이싱모범들이 모두 나와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는 ‘퍼트워크 이벤트’ 등 잔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색 행사가 많다.

또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경주차에 동승해 서킷을 주행하는 철호의 기회인 ‘템시타임’도 운영되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슈퍼레이스는 오는 11월 4일(7라운드) 영암 서킷을 장식한다.

한국 DDGT 챔피언십은 전 경기가 영암 서킷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 대회를 치르며 한국 DDGT 챔피언십에는 160여 대의 차량이 5개 종목 15개 클래스에 출전한다. 자동차 경주계의 패자로 알려진 ‘드리프트’(Drift), 스포트윈트(선착순) 방식으로 순위를 겨루는 ‘슈퍼 투어링(Super Touring 300, 200, 100)’ ‘그랜드 투어링(Grand Touring 500, 300)’ 등 볼거리를 통해 짜릿한 스피드를 선사한다.

또 한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순위

를 정하는 ‘타임트라이얼(Time Trial 500, 300, 200, 100)’, 목표 기록을 달성하는 ‘타임 챌린지(Time Challenge)’ 등 5개 종목 15개 클래스가 화려한 묘기 쇼를 펼친다.

한국 DDGT 챔피언십은 오는 8월 26일(5라운드), 9월 16일(6라운드), 10월 21일(7라운드) 영암 서킷에서 열린다.

오는 22일 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도 빼놓을 수 없는 경주다. 매 대회마다 레이싱 모범의 다채로운 공연과 포토타임, 닥트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고 있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회다. 9월 9일(5라운드)과 11월 18일(6라운드)에도 경주가 계속된다.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KMF 코리아로드레이스 챔피언십은 국내 최고의 모터바이크 대회를 치른다. 경주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 주행시간을 겨루는 경기로, 모터사이클 대회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대회에는 대표적인 로드레이스 경기인 SB1000(1,000cc), ST800(800cc), 250(250cc) 클래스에 46명,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 로드 레이스용 휠과 타이어를 장착한 슈퍼모토 A, B 클래스에 22명 등 총 68명의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참여한다. 또 국내 최고의 전문 라이더가 운전하는 모터사이클에 동승해 서킷을 주행할 수 있고, 일반인 체험 주행 등도 열릴 예정이다. 오는 8월 12일(3라운드)과 11월 11일(4라운드)에 경주가 계속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영암서킷은 ‘연중 질주’

■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	
라운드	개최일
4	9월 23일
5	10월 27일
6	10월 28일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7	11월 4일
■ DDGT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5	8월 26일
6	9월 16일
7	10월 21일

■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라운드	개최일
5	9월 9일
6	11월 18일

■ KMF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3	8월 12일
4	11월 11일

■ 트랙데이1	
라운드	개최일
4	7월 28~29일
5	8월 4~5일
6	11월 24~25일

“F1 레이서처럼 무한질주 해 보세요”

여, 한 번 특별한 라이센스는 1년간 유효하다.

참가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 등을 사전에 점검받아야 한다.

주행비용은 선수용 10만원, 일반인 6만원, 스포츠 주행권(1회 25분 기준)은 3만5000원. 동호인 등 10인 이상 참여하며 트랙데이와 별도로 수시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다.

트랙데이는 참가 신청을 한 후 스포츠 주행권을 구입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센스는 주행 당일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받으면 되



관광 문화

진남매일

2012년 07월 16일 (월)
19면 오피니언

기자수첩

공옥진 여사가 남긴 것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또 오겠 습니다.”

지난 9일 '1인 창무극' 대가 공옥진 여사의 별세 소식으로 지역 안팎이 우울한 시간이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는 소중한 문화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학적 춤사위로 서민을 울린 공 여사는 국내외 무대에서 인정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지난 2010년 6월 27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이었다. 춤을 춘 뒤 울먹이며 “공옥진이 죽지 않으면 또 오겠다”고 무대를 내려간 공 여사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승주군(현 순천)에서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조부인 공창식 명창에서부터 이어진 창과 무재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어렸을 때부터 소리와 춤에 남달랐다. 성원목, 김연수, 임방울 등 당대 명창들에게 학습했으며, 17살 되던 1948년에는 전북 고창에서 열린 명창대회에 참가해 장원했다.

무명이던 1970년대 후반에 한국무용학 1세대 대표 학자인 고 정병호 선생으로부터 지역 춤꾼으로 발탁돼 중앙무대로 진출, 1977년 국내 최초로 1인 창무극을 선보였다.

고인은 국내 1인창무극의 선구자로 불린다. 주 종목인 ‘병신춤’과 ‘동물 모방춤’이 유명하다. 판소리 명창 아버지 공대일 선생에게 춤을 배운 여사의 말년은 씩씩하기만 했다. 영광의 예술연



강승희
문화부 기자

구소에 마련된 4평짜리 방에서 생활하며 '1인 창무극'을 지켜오던 여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4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살았다.

서민들의 천대와 멸시를 해학적으로 풀어냈지만 정작 여사 본인은 세상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았다.

2010년 11월 '판소리 1인 창무극 심청가'로 전남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아 매달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투병생활 때문에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수자로 길러내지 못했다.

질곡의 80년대를 익살과 해학으로 풀어낸 민중 예술인이었고, '1인 창무극'이란 한국 예술의 새로운 공연 장르를 개척한 예인에 대한 세상의 대접이 이 수준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문화예술의 현실이다.

'1인 창무극' 전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늦어지면서 전수자를 육성할 수 없었고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념관조차 없다. 한 예술인의 죽음 뒤엔 늘 그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늘 반복되고 있다. 이번 공옥진 여사의 별세를 계기로 지역에서 그나마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남일보

2012년 07월 16일 (월)
17면 주식

2014 도민체전 무안서 개최

오는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무안군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안군체육회와 무안군의회·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전남체전유치위원회를 구성, 육상·축구 등 20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시설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 2014년 4월에 개최되는 전남체전 대상지로 최종확정됐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8만 군민 모두가 고대 하던 값진 결과로 전남

체전 유치는 다시 한번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경제·감동의 명품체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부권본부/무안=이훈기 기자

10.9 X 8.6 cm



완도 군외도가 고향인 박창룡(46)씨는 바닷가에서 자고 나란 탓에 수영에 능숙하다. 하지만 그에게 수영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는 군외중학교 재학 때부터 수영을 시작, 대학 2학년 때까지 광주시 대표선수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뛰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했고 현재 은퇴 후에도 수영강사와 생활체육 수영재활에도 힘쓰고 있다.

박씨는 "바닷가가 고향인 사람들은 자연스레 물에 친숙하고 수영으로 유년 시절의 추억 한 페이지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제절 바닷물을 놀이터 삼아 시작한 수영이 평생의 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주종목은 접영이었다. 접영은 33년 미국의 헨리 마이어스가 평영을 하면서 양팔을 물 위로 동시에 앞쪽으로 되돌려 헤엄친 것이 시초로 '버터플라이 평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팔과 다리를 좌우 함께 움직이는 데 많은 폐활량과 에너지 소모가 요구된다.

지역 대표 등으로 활약하던 박씨는 본격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

그는 이후 전남도체육회 코치와 광주시체육회 강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씨는 "학생 때부터 수영선수로만 해오다 은퇴를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지도자나 강사를 하는 것도 수영과 함께 하는 삶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수영 전도사 은퇴 후 전남도체육회 코치로 활약 강사로 활동 생활체육 저변에 온힘

30년 수영인생 박창룡씨

“수영하다 보면 더위도 걱정도 싹~”



박창룡씨가 광주시실내수영장에서 수강생들과 교육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주수영연합회 제공

이니 보람과 기쁨이 크다"고 웃어 보였다.

그는 "아이들까지 수영을 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수영장을 데리고 다닌 것이 물과 친

해져 선수로 뛴게 됐다"며 "재능이 있다면 그쪽으로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평일 하루 일과는 오전 광주실내수영장 출근으로 시작된다.

그는 중·고 선수들을 지도하다 2천년대 중반부터 시민들과 수영 동호인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지긋한 세대까지 하루 2~3차례씩 40명 가량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물에서 하루를 보내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시름도 걱정도 잊게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수영은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으로 지구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웨이트를 병행할 경우 효과는 높아진다"며 "유연성과 신체 발달에 좋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많이 배웠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생활체육 광주시수영연합회는 광주 5개구 40개 클럽 1천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최민석기자